

하강과 상승: 한국개신교설교의 전망과 부정신학의 가능성

Young Hyun Choi

초록

성장의 활력을 잃고 쇠퇴하는 한국개신교회에 필요한 것은 신학의 전환이다. 한국개신교회는 신학적으로는 청교도신학의 영향을 크게 받았지만 그 기저에는 개인주의적이고 소비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다. 욕망을 추구해서 힘을 지향하고, 타자를 배척한 결과 신뢰도는 크게 추락했다. 한국개신교의 갱생의 방안 중 에바그리오스의 부정신학적인 요소를 도입해서 욕망과 분노를 억제하고 평정을 추구하며 관계를 회복하고 이성중심에서 실천중심 교회로 전환하는 것과 이를 위한 설교가 필요하다. 에바그리오스의 신비신학은 한국개신교회에 생소하지만 전환기에 적합한 도덕적 신앙적 대안이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¹ 한국을 대표하는 소설가 중 한명인 이문열은 이 제목의 소설에서 권력 혹은 부, 그리고 원초적인 사랑을 갈구하는 남녀가 세속적인 욕망의 날개를 달고 상승을 추구하다 죽음으로 결말을 맺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한국개신교회가 이 소설의 주인공처럼 추락하고 있다. 기실 날개를 달았기에 상승했지만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한때 신도수가 전인구 대비 20-25%에 달한다고 홍보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지난 20년간 개신교인의 숫자는 추락을 거듭했다. 더욱 암울한 것은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다른 종교 혹은 교파에 비해 최하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점과 더불어 청년층 이하 학생들의 숫자가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다.² 10년 이상 급격하게 대두된 한국개신교회 위기담론의 결과, 목회자도 남은 교인도 그만 길을 잃었다. 교세의 회복에 대한 희망도 함께 추락하고 있다.

¹ *이문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서울 1989. 작가는 오스트리아의 시인 바하만(Ingeborg Bachmann)의 시에서 이 소설의 제목을 차용했는데 바하만은 다시 이카로스의 추락이라는 그리스 신화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다고 한다.

² *권혁률*, [교계 포커스(13)] 신뢰의 위기, 한국교회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in: 基督教 思想 675, no. - (2015).

위기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이 시도되고 있지만 개신교회가 한국인들에게 희망이 되기는커녕 치유와 위로의 기능마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한국은 지난 60여년간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경제규모 11위(GDP기준)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OECD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현실은 한국인들이 성장의 그늘에서 상처받았고 지쳐있음을 보여준다.³ 이 지경이 되도록 주류종교를 표방했던 한국개신교회는 무엇을 한 것인가? 향후 한국의 개신교회는 어떻게, 또 누구와 함께 상승을 꿈꿀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상승의 끝에 있어야 할 궁극적인 목적 혹은 가치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는가? 설교는 어떤 신학에 근거해야 하는가?

1. 힘을 추구하는 교회

한국개신교회는 19세기 무렵 도래할 때부터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난관에 봉착한 한국인들에게 탈출구의 역할을 했다. 1885년 이후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의 선교사들을 필두로 교회가 세워진 이래 교회는 학교와 병원을 세우며 문명화에 앞장섰다. 일본제국주의가 강제 병점한 이후 교회는 일본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와 예언서들을 설교하면서 저항의 구심점이 되었고 제국주의의 피난처 역할을 했다. 해방과 함께 1950년 시작된 전쟁의 와중에서도 교회는 와해되지 않았다. 전쟁 후 한국사회가 재건될 때 경제성장과 교회의 성장은 맥을 같이 했다. 신앙은 물질적인 축복으로 여겨졌고 번영이 정당화되었다. 이것이 다수가 인식하고 있는 ‘일반적인’ 한국개신교회의 역사이다. 그러나 위기담론에서 바라본 한국교회의 비판은 이보다 가혹하다.

교회 위축의 일차적인 원인으로 교회 지도자들의 도덕적인 부패를 들고는 한다. 그러나 그것은 나타난 현상이지 구체적인 원인은 아니다. 목회자의 범죄행위는 더욱 큰 욕망과 힘의 구조에서 파생된다. 한국개신교회 지도자들이 흔히 예로 드는 유럽교회의 쇠퇴가 지도자들의 타락에만 그 원인이 있지 않은 것처럼 한국사회의 거시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정당한 분석이 가능하다. 한국의 교회 밖의 변화요소는 크게 민족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확대인데 한국개신교회는 때때로 이들과 영합하며 성장했지만 이제는 이들이 기독교세계관을 거부하는 철저한 세속적세계관으로 작동하며 반기독교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⁴ 개신교회가 이런 사회의 기초적인 요인들로부터 소외된 원인을 교회가 본연의 가치가 아닌 세속적인 가치들을

³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 기준. 2016년 8월 3일 접속: <http://www.oecd.org/korea/OECD-SocietyAtAGlance2014-Highlights-Korea.pdf>

⁴ 조성국, 한국교회 위축현상의 거시적 원인 분석과 대응적 교육방안 모색, in: 복음과 교육 11 (2012), 15-17.

맹목적으로 추구하고 신앙을 개인화하며 사회라는 더 큰 공동체를 외면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개신교회를 다시 돌아보면 주류의 교회들이 처음부터 힘과 성공을 추구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구체적으로 선교 초기부터 가톨릭은 외세라는 인식으로 배척하려는 경향이 강했던 반면에 개신교는 학교와 병원을 필두로 하는 “문명선교 (civilizing mission)”의 형태로 들어오면서 정치적, 경제적 힘과 동일시되었다.⁵ 힘은 단순히 물질적인 우위에서만 강조되지 않았다. 영적으로도 토속 종교보다 우월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세속적인 가치와 신앙이 혼재되어 전과되었다.⁶ 일제라는 힘에 맞설 수 있는 더 힘이 센 종교,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종교, 가난과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부유한 종교로 개신교는 인식이 되었다.⁷

이와 같은 힘의 추구는 사회, 경제적인 억압과 빈곤의 구조를 생각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힘을 추구하는 관성을 남기게 된 것이 문제이다. 이것이 한국개신교회의 추락의 원인이 된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힘과 권력에 취하게 된 과정을 생각해 보면 한국개신교의 신앙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일반화의 위험에도 무릅쓰고 신앙의 양태들을 분석해보면 욕망의 충족이 일차적인 동기가 된 것임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욕망은 힘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그리고 힘을 추구하면 폭력은 예정된 결과이다. 브루그만이 지적한대로 욕망의 충족과 힘의 추구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사람까지 소유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교회 안 목회자들의 폭력의 원인이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주된 관심사는 먹고 사는 경제적인 것에 집중이 된다. 그리고 그런 상황 아래에서 종교는 경제에 종속이 되고 단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된다. 힘의 정점에 다다른 제국은 폭력을 행사하는 데에 무감각해진다.⁸ 솔로몬 왕 치하에서 있었던 이 소유와 힘, 그리고 폭력의 순환이 가져오는 영적이면서 동시에 실제적이기도 한 죽음이 한국땅에도 재현되고 있다.

물질이 종교와 정신을 앞서가고 도덕마저 삼켜버린 현상이 오늘 한국개신교회의 위기의 단초를 제공했지만 그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연원은 선교 초기에

⁵ 조경덕, 기독교 담론의 근대서사화 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1, 2, 11f.

⁶ Ibid., 39.

⁷ 최형묵, 욕망과 배제의 구조로서의 기독교적 가치, in: 시대와 민중신학 7, (2002).

⁸ cf. *Walter Brueggemann/ 김기철 역, 예언자적 상상력*. 서울 2009, 78-90; *Walter Brueggemann/ 주승중 소울순 역, 설교자는 시인이 되어야 한다*. 서울 2007; *Walter Brueggemann/ 박규태 역, 안식일은 저항이다*. 서울 2015; *John F. Kavanaugh, Following Christ in a Consumer Society*. Maryknoll (NY) 2006, 51-56.

이를 정도로 매우 깊다. 그 역사적인 흐름을 되짚어보기 전에 한국개신교의 부흥을 가져온 신앙적인 요소들이 어떠한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개신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하게 된 데에는 새벽기도, 설교의 강조, 봉사, 사경회(부흥회), 유교의 영향을 받은 목사의 높은 권위와 장로직제 등이 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회의 실천적인 측면이 가능하게 된 이유로는 기복주의적인 설교, 감정을 고양시키는 부흥회 혹은 예배, 신비주의적인 은사의 강조, 목회자의 카리스마로 착각되는 독선적인 권위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요인들이 교회의 성장은 이끌었지만 위의 문제들이 반복될수록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용서, 평화, 화해, 궁극적인 가치에 대한 회개 등 기독교 신앙의 핵심가치와는 멀어지게 되었다. 그릇된 권위구조 안에서 목회자들은 마땅히 행해야 할 도덕적 책임을 외면하고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 각종 범죄 행위로 사람들의 질타를 받게 되었다. 더 이상 선교 초기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듬고 정의와 평화, 사랑을 외치기 보다 개교회 중심적인 목회로 퇴행한 결과이다.

2. 성장의 그늘: 과제

여전히 많은 교회가 건전한 목회를 감당하고 있지만 더 이상 폐쇄되고 계도화된 집단으로 퇴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존재 자체로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기관으로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을 “전환기”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환기에 극복해야 할 과제로는 앞의 목회 현장에서 드러나는 현상들에 드러난 근본주의, 신비주의, 소비주의, 개인주의 등을 들 수 있다. 근본주의, 신비주의, 소비주의, 개인주의 등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그 대표적인 분출구는 기복주의고, 기복주의는 신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개신교회의 성장 동력이었던 기복주의적인 설교 등이 가능하게 된 원인을 분석해 보면 먼저 흔히들 지적하는 샤머니즘의 영향 이외에도 청교도적인 신앙과 윤리가 더해져서 상승 작용을 했음을 알게 된다. 막스 베버(Max Weber)가 주장한 자본주의와 청교도 윤리에 대한 이론은 비판의 여지가 많지만 한국의 경우 상당부분 설득력이 있게 적용이 된다.⁹ 선교초기 한국을 찾은 선교사들은 청교도의 영향을 받은 북미권에서 온 경우가 많았고 술과 노름과 같은 행위들은 죄악으로 취급되었다. 앞서 언급한 문명화론과 더불어 기독교를 힘의 종교로 인식하게 했고, 청교도 윤리를 특징짓는 금연과 금주, 주일성수 등이 신앙의 척도로 여겨지게 될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청교도

⁹ 장동민, 한국의 근대화와 한국장로교회: 회고와 전망, in: 장로교회와 신학 9 (2012), 206f.

금욕주의는 그것만 잘 지키면 좋은 신앙이라는 환원주의의 늪에 빠졌고 주기적인 기도와 성경공부 등도 행위 자체를 중요시 여기게 되었다. 이와 함께 토착 종교의 영향을 받은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교회의 신학을 압도하여 개인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근대화를 이끌었던 초기개신교인들은 그러나 세속화 과정에서 점차 정치와 경제 분야에 있어서 영향력을 잃고 만다. 군사독재에서 벗어나면서 교회는 공적인 영역에 관심을 두지 않고 신앙을 사적인 영역으로 제한하게 되었다.¹⁰ 신앙의 사사화(privatization)는 선교초기부터 전수된 보수적인 신앙을 더욱 가속화했다. 개신교회를 이끄는 대형교단 안에서 진보적인 신학은 자리를 잃게 되었다.

소비주의와 개인주의화 역시 근대화 이후 최근에 발달된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과 함께 초기부터 영향력을 행사했다. 선교사들은 이미 근대적인 의미의 개인주의가 내재된 상태로 한국을 찾았고 교회는 교리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 밖의 공동체와 어울리지 못해서 개인주의 집단으로 취급을 받았다.¹¹ 중산층의 소비문화를 선교지에 그대로 가져온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소비주의가 한국인의 욕망을 부추기게 되었고 경제활동까지 벌이는 일도 잦았다.¹² 신학적으로는 근대 이후 보수주의가 강조하는 교리 중심, 이성 중심적인 사고가 지속되었다. 결국 욕망을 부추기고 힘을 추구하며 정치와 결탁하는 관계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었고 교회는 점차 내부를 향하면서 배타적이고 폐쇄적이 되었다.

이런 전환기적 과제에 대해서 한국의 신학자들은 지속적으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중 개혁신학적 관점에서 보수(repair)하자는 견해가 우선 눈에 뜨인다. 청교도 신학을 필두로 하는 기존의 신학과 영성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고쳐서 나가면 된다는 것이다.¹³ 세속화 혹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요구에 교회가 응답하자는 견해도 있다. 보수주의 진영에서 제기하는 핵심은 근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한 보다 개방적인 기독교세계관 운동 등을 통해 교회가 사회에 침투하고 호흡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⁴

¹⁰ Ibid., 220f.

¹¹ *이덕주*, 한국초대교회사에 나타난 오류와 한계, in: 기독교사상 49, no. 12 (2005), 226f.

¹² Cf. *Dae Young Ryn*, Understanding Early American Missionaries in Korea (1884-1910): Capitalist Middle-Class Values and the Weber Thesis, in: Archives de Sciences Sociales des Religions 113, (2001).

¹³ Cf. *유재경*, 영국 청교도 영성의 한국교회의 수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in: 신학과 실천 48, (2016); *Stanley J. Grenz/ 김운용* 역,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서울 2010.

¹⁴ *조성국*, 한국교회 위축현상의 거시적 원인 분석과 대응적 교육방안 모색, 23-25.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공통적인 것 한가지는 한국개신교회의 개혁이 설교에서 와야 한다는 점이다. 주류의 개신교 지도자들이 부정적인 모순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개혁은 설교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된다. 폭력이 내부적인 것이든 외부로부터 온 것이든 그 대안은 설교에서 오기 때문이다.¹⁵ 특히 한국개신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또 지금의 목회 현장에 있어서 설교의 역할은 매우 크다. 일반적으로 설교자들은 일주일에 6번 정도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하고 주중에 일어나는 목회활동이나 심방에서도 짧은 설교가 빠지지 않는다.

전환기의 과제는 그래서 설교를 개혁하는 것이 되어야 마땅한데 전환기 한국개신교회의 설교의 과제는 일차적으로 설교의 형태를 바꾸는 것과 같은 설교 자체에 있지 않다. 이제까지 당연하게 설교를 지배하고 있던 신학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가 일차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한국의 개신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신학이 들어설 여지가 굉장히 좁다. 목회자의 신학적 방향을 지배하는 것은 ‘선명하고 확신이 있는’ 신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까지 지배적이던 신학을 재건하려는 시도보다 어쩌면 현재 한국개신교회의 상황에, 또 한국사회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신학의 모델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오늘의 한국개신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개인적인 신앙의 점검, 다시 말해 영성신학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이미 서구사회를 필두로 불기 시작한 영성에 대한 관심은 개신교회를 떠난 한국의 개신교인들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고조되고 있다.¹⁶ 물질주의에 지친 현대인들이 궁극적인 가치에 다시금 관심을 가지고 자기 안의 문제에 해답을 추구할 때 기독교 전통에서 이들의 관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성신학이다.¹⁷ 기존의 개신교신학도 나름대로 이런 관심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지만 부정신학 (negative theology) 은 한국개신교계에서 그다지 언급이 되지 못했다. 설교와 관련해서 부정신학을 언급하는 것은 본고가 처음일 것인데 부정신학에 대한 관심이 개신교계 안에서 고조된 것이 불과 몇 년 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정신학은 이제 막 텍스트들이 번역이 되는 단계인데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개신교 안에서도 부정신학에 대해서 무조건 배타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만 있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려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 통합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증대되는 지금이 부정신학의 면모를 확인해야 하는 때라고 할 수 있다.

¹⁵ Charles L. Campbell, *The Word before the Powers: An Ethic of Preaching*, 1st ed. Louisville, Ky. 2002, 76-78.

¹⁶ Cf. 정재영, 종교 세속화의 한 측면으로서 소속 없는 신앙인들에 대한 연구, in: 신학과 실천 39 (2014).

¹⁷ Cf. 유재경, 왜 이시대에 기독교 영성인가?, in: 신학과 목회 35 (2011).

아래에서는 부정신학의 함의와 가능성을 다루려고 하는데 자세한 이론적인 설명이나 각 교파의 입장에서 제기되는 신학적인 비판은 생략하고 적용 가능성 위주로 논의하고자 한다.

3. 부정신학의 가능성: 에바그리오스를 중심으로

한국개신교회의 전환은 신학의 전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부정신학 (theologia negativa, apophatic theology) 은 긍정신학 (kataphatic theology) 과 대비되는 신학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기원은 초기교회에 닿아있다. 긍정신학은 서방기독교를 지배하고 있는 신학으로 이성애 근거해서 신앙을 개념화하고 체계화했다. 부정신학은 이런 방법으로는 신에 대해서 정의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신이 스스로를 드러낸다는 ‘계시신학’과 ‘자연신학’의 길과는 다른 부정의 길 (via negativa) 을 따르는 부정신학은 그 기원을 플라톤에게서 찾을 수 있다. 위-디오니시우스 (Pseudo-Dionysius Areopagita) 는 신의 초월성에 대해서 숙고한 결과 인간의 사유로는 신의 본질을 알 수도, 표현할 수도 없다고 봤다. 이 부정신학의 핵심적인 요소들은 갑바도기아 교부들에게서 정립되면서 동방 비잔틴 신학에 영향을 줬다. 서방에서는 아퀴나스와 에크하르트를 거쳐 계승되었다. 폭스 (Matthew Fox) 에 의하면 서방교회에서 부정신학의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고 개신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라도 한다. 부정의 길 대신 로마가톨릭에서는 금욕주의가, 개신교에서는 죄에 대한 묵상과 속죄론이 강조가 되었다.¹⁸정화-조명-연합의 과정을 거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마지막 단계로 보는 이 운동은 영성 (spirituality) 혹은 신비신학 (theologia mystica) 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부정신학에 주목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내’가 중심이 되는 포스트모던 상황에서 인간 자체에 대한 이해를 가져올 수 있는 보다 세심한 신학이 필요기 때문이다.¹⁹ 부정신학은 동방정교회를 제외한 각 기독교 교파에서 아직은 생소한 신학이다. 그러나 초기교회 이래로 박해와 같은 고통이 있는 다음에 정작 교회를 혼란하게 만든 것은 세속화였음을 고려해야 한다. 부정신학은 4세기 사막으로 나간 교부들을 통해서 일찍이 이런 세속화를 극복하는 신학으로 정립이 된 것이기에 오늘의 한국 상황에도 적합하다.

¹⁸ Matthew Fox/ 황종렬 역, 원복. 칠곡군 2001, 138f. 부정신학의 영향력은 철학을 포함한 사상사에 전반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본고의 성격상 개신교 안의 경건주의 운동을 포함한 영성신학의 양상이나 로마가톨릭 안의 부정신학의 흔적 등에 관해서는 세밀하게 다루지 않는다.

¹⁹ 차광호, 포스트모던에서의 부정신학, in: 가톨릭신학 3 (2003), 55.

가파도기아에서 이 신학의 기초를 놓은 교부들 중 에바그리오스 (Evagrius Ponticus, 345–399) 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초대로부터 중세로 이어지는 영성신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 중 한 명으로 서양의 문학과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의 방법론은 한국개신교회에 접목할만한 풍부한 영감과 실천의 방법을 제시한다.²⁰ 그의 신학의 특징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 단계 영혼의 길

특히 에바그리오스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영적인 삶을 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윤리학 (ethike), 자연학 (physike), 형이상학 (enoptike) 대신 실천학 (praktike), 자연학 (physike), 신학 (theologia) 을 사용해서 금욕적인 삶이 어떻게 내면의 악한 생각들을 제어하는지, 절대 평정의 세계에 도달하는지를 보여줬다. 실천학에서 영혼은 덕을 쌓아 감정에서 해방된 상태에 들어간다. 이 길은 믿음으로 시작되고 내면의 욕망적 부분 (desiring part) 과 싸운다. 자연학은 피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계이다.²¹ 신학의 단계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gnosis) 을 얻어 하나님 자신을 참되게 관상할 수 있다.²² 결국 인간은 육체에 집착하는 단계를 벗어나서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영혼의 삼분법

에바그리오스의 신학의 특징 중 하나인 영혼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영혼에 대한 세 가지 분류를 이해해야 한다. 첫 번째는 지성 (nous) 으로 영(혼) (pneuma) 와 동일어이며 타락 이전의 순수한 상태이다. 두 번째는 욕처 (epithymia) 이다. 인간의 욕망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화처 (thymos) 이다. 욕처를 제어하며 영적인 것과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욕처와 화처는 비이성적인 부분으로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것을 막기 때문에 ‘실천학’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²³ 그의 분류는 플라톤에서 왔는데 차이점은 걱정(화처)을 대하는 태도이다.²⁴ 플라톤은 걱정(화처)이 이성의 통제를

²⁰ 본도(폰투스)에서 태어난 에바그리오스는 가파도기아의 성직자가 되어 대 바실리우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오스, 니사의 그레고리오스 등 세명의 교부들의 제자가 되어 4세기 삼위일체 신학을 이어받는다. 깊은 사막인 켈리아로 가서 여생을 보내면서 타협 없이 엄격한 수덕을 실천했다. Cf. *Evagrius Ponticus*/ 남성현 역, (폰투스의 에바그리오스) 실천학. trans., Antoine Guillaumont, Claire Guillaumont, and Gabriel Bunge 서울 2015, 20-27; *Andrew Louth*/ 배성욱 역, 서양 신비사상의 기원. 칠곡군 2001, 153–155.

²¹ *Evagrius Ponticus*/ 허성석 역, 그노스티코스. 서울 2016, 81. 본문 49장.

²² Cf. *Evagrius Ponticus*/ 남성현 역, (폰투스의 에바그리오스) 실천학; *Louth*/ 배성욱 역, 서양 신비사상의 기원, 156-161.

²³ *Evagrius Ponticus*/ 남성현 역, (폰투스의 에바그리오스) 실천학, 35-37.

²⁴ *Leslie Stevenson, David L. Haberman*/ 박중서 역, 인간의 본성에 관한 10가지 이론(Ten Theories of Human Nature). 4th ed. 서울 2006, 146f.

받는다고 했지만 에바그리오스는 화처가 욕처(욕망)만큼이나 통제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이해한다. 욕망이 실패하면 그때부터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의 욕망은 하나님을 향한 욕망으로 귀결되어야 하며, 화처는 이를 방해하는 마귀와 싸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²⁵

구원의 길에서 만나는 장애물: 팔사념 (logismoi)

영혼을 뒤흔드는 마귀와 대적하는 과정에서 침묵과 고요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사념이다. 망상 혹은 잡념이라고도 하는데 에바그리오스는 대식, 간음, 탐욕, 비탄, 분노, 나태, 허영, 오만이라는 여덟가지를 꼽았고 이것이 후에 서양에서 일곱 가지 죄의 선례가 되었다.²⁶ 이 각각은 마음을 어지럽혀서 수련을 포기하게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탐식은 건강을 염려해서 고된 수도 생활에 염증을 느끼게 한다.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대인관계를 포함해서 다양한 관계를 옳아 맨다. 이런 모든 동요의 뿌리는 ‘자기만족’ (philatia) 으로 자아에 대한 “경향성이 짙은 사랑”이다. 이 자아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동요와 분노가 일어난다고 강조했다.²⁷

수덕의 목적인 평정(aphatheia)

실천학이 추구하는 최고의 상태는 평정(아파테이아, aphantia)으로 정욕에서 자유로운 상태이다. 마음의 순수한 상태로 일컬어지기도 하는 이 개념은 아직 죄로부터 풀려난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동요 없는 초연한 상태,’ 즉 ‘아파테이아’에 이미 도달한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단순한 사고에 갇혀 있어서 그것이 제공하는 정보로 인해 산만해지거나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55장)²⁸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참된 관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단계이다. 여기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지는 차단된다. 오직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만 관상이라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연민으로 우리가 정결하지 않을 때라도 우리 안에 머무신다. 만약 그분이 진리에 대한 사랑 안에서 기도하는 영혼을 발견하길

²⁵ Cf. 남성현, 플라톤의 영혼의 삼분법과 에바그리오스의 영성신학, in: 장신논단 48, no. 2 (2016); 남성현, 폰투스의 에바그리오스의 영성 테라피, in: 서양고대사연구 43, no. - (2015); 유재경, 영적 성장의 관점에 본 에바그리오스의 인간 이해, in: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9, no. 1 (2012).

²⁶ 이 일곱 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는 이후 서양문화와 인간학의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했고 중세 로마가톨릭신학 역시 이 죄들과의 관계에서 주요 신학을 발전시켰다. 남성현, 폰투스의 에바그리오스의 영성 테라피, 67.

²⁷ Louth/ 배성욱 역, 서양 신비사상의 기원, 159-160; Evagrius Ponticus/ 남성현 역, (폰투스의 에바그리오스) 실천학, 46-49, 86ff.

²⁸ Evagrius Ponticus/ 전경미 이재길 역, 에바그리오스의 기도와 묵상. 서울 2011, 24.

원하신다면, 그분은 그 영에 들어오셔서 ... 영적인 기도를 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도록 끊임없이 촉구하실 것이다.”(62장)²⁹

4. 부정신학의 시사점

한국개신교회의 문제점과 모순은 그것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해결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과 똑같은 구도로 세속화라는 거센 파도 앞에서 사막으로 나갔던 에바그리오스와 같은 선구자의 고민을 귀담아 듣는다면 보다 가시적으로 문제를 드러내고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에바그리오스의 신학과 방법론을 한국개신교회의 목회와 설교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4.1 갱신으로서의 부정신학

부정신학의 방법들은 한국의 개신교회에 잘못 뿌리내린 신앙의 양태들에 대해서 교정의 모범을 제공한다. 아래는 이제까지의 논지에 따라 들 수 있는 대표적인 몇몇 문제와 그에 대한 부정신학적인 해법들이다.

욕망의 거부: 가장 먼저 언급할만한 것은 욕망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제시했기 때문에 한국개신교회에 유용하다는 점이다. 욕망은 화를 불러일으킨다. 적당한 욕망이 근면한 생활을 가져온다고 후한 점수를 줄 수도 있지만 무엇을 위한 근면한 생활인가를 물을 때 부적절한 욕망의 정당성은 사라진다. 게다가 에바그리오스의 관점에 따르면 세상의 욕망으로 이끄는 것은 마귀이다. 그리고 이 욕망은 충족되지 않기에 이 욕망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된다.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준동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에바그리오스가 인간의 감정에 주목한 것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일이었다. 마치 지금의 교회와도 같이 이원론적으로 영과 육의 대립에만 관심이 있던 시기에 감정의 차원이 정돈되어야 이성이든 육신이든 나아갈 방향을 정할 수 있음을 적절하게 제시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은 ‘욕망-분노-폭력-죽음’의 고리로 이어진다. 한국개신교회의 설교는 이 고리를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해야 하고 그것을 끊는 데에 기여해야 한다. 설교를 통해 욕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고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것이 신앙과 유리될 수 있음을 보게 하는 해석학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기존의 안식일에 대한 신학이 이런 기능을 일부분 담당했었던 것은 사실이다.³⁰ 그러나

²⁹ Ibid., 26.

³⁰ Cf. *Brueggemann/ 박규태 역*, 안식일은 저항이다.

에바그리오스의 끊어내는 실천은 일주일 단위가 아니라 매순간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지성 중심의 신앙의 전환: 이성 중심적인 신앙은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 충분하게 여기게 만들었고 성경에 대해서도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구원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오해하게 했다.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신학은 인간적인 노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많은 개신교인들은 신약성경에도 분명하게 제시되는 실천의 측면에 대해서 평가절하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삶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일상과 유리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 지성 중심주의의 뿌리는 청교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청교도들은 전통적으로 긍정의 방법 (kataphatic way) 와 부정의 방법 (apophatic way) 중 긍정의 방법을 추구했고, 그 결과 성경 읽기와 묵상 등을 강조하게 되었다. 많은 설교가들이 배출되었고 설교 사역이 최고로 가치 있는 사역으로 여겨졌다. 비워내고 끊어내는 부정신학의 방법과 달리 이성적인 확신을 추구했고 지성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봤다.³¹ 명쾌하게 진리를 일깨워주는 종교의 필요성은 역사와도 관련이 있다. 일본의 강점 이후 불확실한 현실을 극복할 확실하고 명쾌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였을 것이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지금 다시 더욱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찾아야 하고 그것은 실천의 영역에서 찾을 수 있다.

이때 이성적인 깨달음과 대비되는 실천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직접적인 수행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 너머에 있는 실천을 추동하는 동기에 관련된 것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영성신학은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깨닫는 단계에서 마음(kardia) 자체로 옮겨져야 하고 수련의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본다.³²

화에 대한 신학적 해석: 한국인은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데에 익숙한 동시에 내면에 감추기도 하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인다. 분노가 내재되어 생기는 ‘화병’ (Hwa-byung symptoms) 이라는 한국인만의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을 정도이다. 반면 타인의 분노에 무관심하기도 해서 심리적인 돌봄이 모두에게 필요하다. 에바그리오스는 욕망이 쌓이는 욕처도 치료해야 하지만 욕망의 실패가 초래하는 분노는 더욱 치료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때 화는 단순한 감정적인 분노이기도 하지만 인정받지 못해서 생기는 섭섭한 마음, 존중받지 못해서 생기는 교만한 마음까지를 포괄한다. 따라서

³¹ 유재경, 영국 청교도 영성의 한국교회의 수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377-380.

³² 김수천, 4세기의 이집트 수도자 마카리우스와 에바그리오스의 영성사상 고찰, in: 신학과 실천 19, no. 1 (2009), 252f.

마귀는 이 화처를 이용해서 타인을 공격하게 만든다. 플라톤이 화처가 영혼의 상승을 가져오는 원인이라고 긍정적으로 본 것과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난다.³³ 에바그리오스는 이 화처에 대한 동요를 사라지게 하는 것을 실천학의 목표로 봤다. 이 영혼을 정화하는 것이 회복이고 이것은 실천학을 사용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리스도는 “영혼의 의사”이다.³⁴ 보다 실제적인 적용은 분노가 쌓일 때 그것을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풀지 말고 애초에 이 분노를 기획하고 이용하는 마귀에게 풀라고 한 에바그리오스의 가르침을 알 때 이룰 수 있다. 결국 화처를 통해서 마귀를 내쫓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³⁵ 내 안의 분노는 대상 없이 마구 표출한다고 가라앉지 않는다. 더욱 큰 폭력과 복수를 가져온다. 결국 그 시작인 마귀에게 화를 내는 것이 화처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마귀의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다.

한국사회의 경쟁이 심화될수록 개인이 받는 고통은 커진다. 인정받지 못해서 울분이 쌓이고 사는 것이 버거워 진다. 고통의 기저에 흐르는 정신적인 것은 단지 마음의 일에 그치지 않는다. 심리적인 것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실제로 사람을 파괴시키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힘이기 때문에 설교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부분이다.

착취의 수단으로 오용된 신비주의의 재발견: 한국개신교회에서 신비는 초자연적인 경험이나 현상을 의미한다. 방언, 신유, 입신, 환상을 보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본디 신비는 인간에 내재된 근원적인 종교성과 연관이 된다. 문제는 불건전한 신비주의이다. 신비한 어떤 경험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만을 추구하게 될 때 이를 이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목회적으로도 신비한 현상의 경험을 조장하거나 설교자마저 무당과 같이 영적인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신비주의에서 이러한 주술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황홀경이 아닌 하나님과의 연합을 목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신비의 핵심으로 여기는 것이 부정신학이 강조하는 신비신학이다.³⁶ 따라서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비체험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이때 설교의 과제는 올바른 신비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 가운데 제시된 말씀이 접촉점으로 기능하도록 제시하고 독려하는 것이다.

³³ Cf. 남성현, 플라톤의 영혼의 삼분법과 에바그리오스의 영성신학.

³⁴ *Evagrius Ponticus*/ 남성현 역, (폰투스의 에바그리오스) 실천학, 49ff.

³⁵ Ibid., 143. 본문 24장.

³⁶ *Louis Bouyer*/ 정대식 역, 영성 생활 입문. 서울 1992, 396f, 411f.

사랑의 확대: 앞의 신비와 연관해서 부정신학은 사랑이 개인적인 것이 아닌 궁극적인 존재를 향한 것임을 깨닫게 한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범주에서 욕망하는 것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그리고 전혀 무가치한 것까지도 사랑하신다. 신비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욕망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을 개인적인 감정의 영역으로 제한하고는 한다. 특별히 자기 자신의 육체에 대한 사랑인 나르시시즘은 현대사회의 그릇된 욕망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 에바그리오스에게 있어서 이런 육체의 사랑은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몸을 수단으로 해서 영혼이 평안의 상태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체의 아름다움이 영혼의 평안의 전제조건임을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몸의 절제를 통해서 영혼의 평안에 이르고 바로 그 상태에서 깨끗한 기도로 하나님을 보게 됨을 의미한다.³⁷

4.2 보완으로서의 부정신학

에바그리오스와 부정신학은 한국개신교회가 이미 실천하고 있는 영역의 것들을 보완하는 데에도 유효하다.

삼위일체에 대한 관심: 삼위일체는 기독교가 초기부터 매우 귀중하게 생각한 교리이다. 그런데 한국개신교회에서는 그 중요성에 대한 강조도, 풍성한 신학적인 의미에 대한 해석과 적용도 찾기가 쉽지 않다. 부정신학에서 삼위일체 교리는 구원경륜과 연결이 된다.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성령으로 인한 육화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충만하게 일어난다.”³⁸ 삼위일체를 교리로 이해하기에는 건너야 할 간극이 크다.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은 오해의 소지를 줄여줄 뿐이다. 그래서 언어로 이해할 수 없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고 개인의 삶과 공동체를 지탱하시는 하나님으로 알 수 있을 뿐이다.

관계의 중요성: 한국개신교는 동양적인 사고방식에 따라 매우 끈끈한 인간관계로 얽혀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그 범위가 매우 좁고 제한적이다. 선교 초기부터 개인주의가 강하게 작용했고 동양적 사고 방식에 따라서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기는 하지만 자기 가족 중심의 편협한 공동체에 집중한 결과 한국의 개신교회는 교단보다 개교회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신학적으로도 나의 욕망을 위해 타자를 구분하고 배척하며 점차 내면화된 신앙은 다시 개인주의화를 가속했다. 이때 신학이

³⁷ 남성현, 플라톤의 영혼의 삼분법과 에바그리오스의 영성신학, 85-87.

³⁸ 광승룡, 부정신학, in: 가톨릭 신학과 사상, no. 66 (2010), 120f.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의 삶을 해석하는 것으로 정의가 됨을 기억한다면³⁹ 부정신학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신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알고 설명하려는 갈망인 것임을 깨닫게 된다. 게다가 하나님을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비인격적이고 절대적인 존재가 아닌 분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작업이기도 하다.⁴⁰ 설교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과도한 개인주의가 갖는 모순을 극복하고 서로가 연대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리는 것이다. 공동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선포해서 개인주의를 극복하는 것이다.

실천의 관점에서 볼 때 에바그리오스의 관찰에 따르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타인과의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다. 온유한 마음은 타인에 대한 증오를 비울 때, 겸손한 마음은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신을 볼 때 가능하다.⁴¹ 사람을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은 해소된다.

어리석음 그리고 불의에 대한 저항: 옳지 않은 일을 접했을 때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에바그리오스는 이웃에 대한 당연한 분노는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

“당신이 기도할 때, 그저 오로지 분노에만 호소하듯이 생각되는 것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이웃을 거스르는 정당한 분노와 같은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추구한다면, 당신은 어떤 분노함도 없이 그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므로 분노의 폭발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이용하라.”(기도론, 24장)⁴²

그에게는 분노라는 범주 자체가 용인되지 않았다. 그러면 눈앞의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에바그리오스는 화의 마귀와 싸우라고 한다. 모든 종류의 악한 생각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는 기이한 행적을 일삼기도 했다. 한겨울에 내면의 욕정을 이기기 위해서 즉시 벌거벗은 채로 온몸이 추위에 얼도록 우물가에서 밤을 지새기도 했다. 언젠가는 불경한 악령이 자신을 괴롭히자 40일간 벌레가 몸에 들끓게 하기도

³⁹ Cf. Rowan Williams, *On Christian Theology*. Oxford, UK ; 2000, vii.

⁴⁰ 차광호, *포스트모던에서의 부정신학*, 76f.

⁴¹ Cf. Vladimir Lossky/ 박노양 역, *동방교회의 신비신학에 대하여*. 서울 2003; Evagrius Ponticus/ 전경미 이재길 역, *에바그리우스의 기도와 묵상*. “수도사들에 대한 권면” 19, 31, 33, 34, 35, 61장

⁴² Evagrius Ponticus/ 전경미 이재길 역, *에바그리우스의 기도와 묵상*, 15.

했다.⁴³ 이런 모습은 구약의 예언자들의 상징 행위나 불의와 타협하는 세상의 인습과 불의의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관조하며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어릿광대의 모습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⁴⁴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행위를 통해 공고한 마귀의 권세에 균열을 가져오는 행위이다.

한국에도 불교와 같은 전통 종교에서 이런 수도승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⁴⁵ 에바그리오스는 이러한 행위의 기원과 목적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어떠한지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실제로 부정신학에서 비롯된 자기를 비우고 모욕을 감수하는 영성은 러시아에서 ‘성스러운 바보’ 혹은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로 13세기에서 14세기에 걸쳐 등장했다. 이들은 모욕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려는 것처럼 행동했고 러시아 영성의 특징적인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게 된다.⁴⁶

스스로 모욕당하는 것은 폭력에 대한 거부를 의미한다. 폭력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대하는 것은 예수님이 반대하는 저항이다. 그분은 단 한번도 폭력으로 폭력을 대하지 않으셨다.⁴⁷ 캠벨 (Charles Campbell)이 말하는 어릿광대의 우스꽝스러운 모습들로 악을 대하고 그 파괴적인 면과 폭력성을 드러냈을 뿐이다. 한국의 개신교가 힘의 논리를 좇으려고 하면 할수록 폭력에 대한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따르기가 어려워진다. 한국의 설교자들은 부정신학이 말하는 십자가의 어리석음에 의지해서 텅빈 어리석음을 전해야 한다.

기도와 금욕 등 수행에 관하여: 기도와 금식과 같은 금욕의 실천은 한국교회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 공동기도와 같이 기도문에 의한 기도보다는 개별적이고 때로는 소리를 내는 통성기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고 하루 일과 중 개인의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신앙의 실천으로 가르친다. 금식은 어떤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다지 특별하지 않을 정도로 한국의 개신교회를 대표하는 금욕 수행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에바그리오스는 이런 기도와 금욕의 실천이 어떤 의도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만약 한국의 개신교회가 기도와 금주, 금연, 금식과 같은 금욕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

⁴³ 허성준, 사막에서 길을 묻다. 서울 2008, 54-56.

⁴⁴ Cf. Charles L. Campbell, *Joban H. Cilliers/ 김대진 역*, 하나님의 어릿광대. 서울 2014.

⁴⁵ 문화권에 따라서 자기 비움과 같은 개념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자기 비움의 수도 전통이 이미 유사한 형태로 지속되었다. Cf. Ibid., 48f.

⁴⁶ 광승룡, (도스토예프스키의)비움과 충만의 그리스도. 서울 1998, 72f.

⁴⁷ Campbell et al., 하나님의 어릿광대, 270f.

삼는다면 이는 바른 기독교 전통에 서 있다고 하기 어렵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고 영혼을 비우며 평온의 상태로 가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 특히 에바그리오스는 기도가 금욕과 노동, 침묵 등 그 어느 것보다 우선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도는 자아를 만나는 문이고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여정을 의미한다.⁴⁸

4.3 토착신학으로서의 부정신학

부정신학에 대해서 또 하나의 외래신학에 불과하다고 치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원에서부터 지금의 기독교의 신학과 실천을 형성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개신교회에 전혀 이질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한국의 토착종교나 대중의 정서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성경 중심: 성경책에 대한 개신교의 애착은 남다른데 개척교회의 신학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경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교문화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어려서부터 성경 구절들을 외우며 매일 QT(quiet time)를 통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대표적인 신앙 훈련으로 인식되고 있다. 장년층 사이에서는 성경을 그대로 필사하는 것도 종종 목격이 된다. 에바그리오스는 이런 말씀의 묵상과 암송을 보다 구체적인 영성신학의 일부로 생각했다. 자신의 저서 <안티레티코스>를 통해서 하나의 유혹이나 마귀의 준동이 있을 때마다 대응되는 성경 구절을 암송해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경 독서는 기도에도 필수적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비신학의 핵심은 기도에 있는데 기도는 정신이 순수할 때 가능하고 그런 순수한 정신은 성경 독서를 통해서 가능해진다. 이 짧은 성경 구절은 묵상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결국 개인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⁴⁹

한국개신교회에서 성경에 대한 신학적인 강조 차원을 넘어서 성경의 말씀 자체를 주술과 같은 영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여전히 맹목적으로 성경을 암송하고 그것으로 신앙의 공적을 삼으려는 의도는 경계해야 한다.

한국적인 정서 친화력: 에바그리오스가 강조한 금욕의 실천이나 기도의 방법 등은 그 외형적인 모습만 놓고 보면 한국의 불교나 도교와 같은 종교에서 어렵지 않게 볼

⁴⁸ 정준기, 사막교부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의 <수도사에게> 연구, in: 光神論壇 19 (2010), 201-203.

⁴⁹ Cf. *Evagrius Ponticus*/ 허성석 역, 안티레티코스. 칠곡군 2014; *Anselm Grün*/ 김영철 역, 내 영혼의 치유제. 칠곡군 2014. 그룬은 에바그리우스의 안티레티코스를 오늘의 언어로 풀어서 책을 펴냈다.

수 있는 모습들이다. 심지어 비움 등을 말하는 용어까지 유사하다.⁵⁰ 이런 면 때문에 한국의 개신교에 부정신학을 접목할 때 비판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유사성은 오히려 거부감을 덜어줄 가능성도 있다. 부정의 방법은 한국인의 정서와 비슷한 부분이 많다. 다른 사람 앞에서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감추는 경향이 강하다. 문화나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유사성이 나타난다. 한국인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또 마음이 즐거울 때도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최고조의 기쁨도 “~해서 죽겠다.”고 한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더욱 강렬하게 표현한다.⁵¹

조금 다른 경우는 토착적인 종교와 사상의 영향은 받았지만 기독교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경우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토착적이면서 부정신학적인 신학과 신앙을 전개한 영성가들이 있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이 다석 류영모(1890~1981) 선생이다. 그는 부정신학의 방법을 통해서 자신만의 기독교의 신학 체계를 세운 사람으로 활발한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는 사는 방법이 남과 달라 괴짜로 불리기도 했고 성자라 추앙되기도 했다. 15살 때부터 신앙을 접한 그는 톨스토이의 영향을 받은 이래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신앙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한다. 금욕적 생활을 위해서 하루에 한끼만 먹고, 부인과는 오누이 지간으로 살기를 결행했으며 저녁에 잠드는 것을 죽는 것과 같이 여겨서 매일 저녁에 죽고 아침에 사는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로 여기며 살았다. 류영모는 ‘나’라는 것은 실체가 없고 절대존재인 하나님은 비어있다고 봤다. 인간은 하늘을 그리워하며 살게 되어 있다고 했으며 물질세계에 얽매이지 말고 초월할 것을 강조했다. 그의 다양한 생각을 이 자리에서 다 정리할 수는 없지만 부정신학의 흔적을 그의 신앙과 사상에서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⁵²

이상과 같이 부정신학이 한국개신교에 갱신과 보완, 그리고 친화적인 면으로 각각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봤다. 이외에도 부정신학은 개인간의 갈등 해소뿐만 아니라 사회의 갈등, 나아가 정치, 경제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여지가 있다. 비근한 예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⁵⁰ 기독교를 불교, 도교, 유교 등의 전통 고등종교와 비교하는 연구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되어서 나름대로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었다.

⁵¹ 곽승룡, *부정신학*, 139.

⁵² Cf. *류영모/박영호*, 다석 류영모의 기독교 사상. 서울 1995; *정양모 et al.*, 하루를 일생처럼. 서울 2011; *박영호*, 다석 류영모의 생애와 사상. 서울 1996; *박영호*, 多夕 柳永模의 생각과 믿음. 서울 1995; *최윤주*, 다석 류영모의 '생명의 영성'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07.

통일인데 서로를 향한 용서와 화해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먼저 남한의 기독교인들이 에바그리오스의 가르침대로 모든 판단을 그치고 용서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대로 판단하는 것이고, 복음대로 설교하는 것이 될 것이다.

아울러 부정신학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는 에큐메니칼 정신을 실천한다는 의미도 있다. 부정신학 자체는 초기부터 이단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서방교회에서 역사적으로 억압되고 소외된 신학이었다. 그래서 신학 자체만을 놓고 보면 서방에서는 그 정신만 기저에 흘렸는데 똑같은 상황이 한국의 개신교 안에서도 일어날 확률이 높다. 복음의 본질이 개방이고 자기를 비움이라면, 그래서 이웃을 환대하는 것이라면 초기부터 신앙의 진리를 담고 있는 에바그리오스의 신비신학을 무조건 외면할 정당한 이유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나가며

상승은 추락을 예견하게 한다. 기독교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개인주의적이며 소비주의적인 신앙을 확대한 한국의 개신교회는 이제 욕망과 성공주의로 불린 무거운 몸 때문에 가라앉고 있다. 추락하는 것에는 여전히 날개가 있는데 상승은 불가능한 것인가? 예수님은 자기의 존재 자체를 비우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자기를 비우면 비울수록 높이 달려서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민 21:9). 한국개신교회도 구원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서 오히려 더욱 추락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돌아갈(상승)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있어야 할 것은 부정신학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에바그리오스가 실천학에서 제시한대로 우리의 욕망은 하나님을 향하게 해야 하고 화처는 마귀와 싸워야 한다. 다양한 망상을 기도와 성경 말씀으로 끊어내고 평정의 상태에 들어가야 한다. 개인의 영역에서 이런 수행을 했을 때 욕망-분노-폭력의 연쇄작용 끝에 우리를 기다리던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아직 긍정신학의 영향이 강하고 익숙하지만 부정신학의 가르침은 타인을 향하던 분노를 거두게 하고 용서와 화해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오용된 신비주의와 폐쇄적인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웃을 향해 개방될 것이다. 브루그만의 지적처럼 배타주의와 자폐성을 분주한 욕망을 끊어냄으로 극복하는 것이 설교의 우선적인 과제일 것이다.⁵³ 이런

⁵³ Cf. Brueggemann/ 박규태 역, 안식일은 저항이다.

우리의 신앙과 설교는 거침이 없어서 마귀의 계락을 폭력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드러낼 것이다. 또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방법으로 과감하게 선포할 것이다. 개인의 내면에 대한 강조로 인해서 설교자의 역할은 어쩌면 축소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에바그리오스의 제안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이들을 이미 매일매일 갈등의 순간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한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들을 향한 선포는 예전과 다른 힘과 능력으로 공동체의 연대를 이끄는 설교가 될 것이고 모두를 살리는 설교가 될 것이다. 상승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